

P2P ()

- P2P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8-9 .
-



커먼즈와 P2P란?

커먼즈란:



자원의 장기적 파수(把守)를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자기조직화된 체계로서 이를 통해 공동체들이 시장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최소로만 의존하면서 자원을 (소진되는 것과 다시 채워지는 것 모두) 관리한다.



종종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종종은 시장과 국가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방식으로 가치를 생성하는 경제(와 삶)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물려받거나 함께 창출하는 부는 감소되지 않거나 향상된 상태로 우리 후손에게 넘겨져야 한다. 우리의 집단적 부에는 자연의 선물들, 사회 기반시설, 문화 산물들과 전통, 그리고 지식이 포함된다.



커머닝 없이 커먼즈 없다!

커먼즈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자원



자원의 주위에 형성된 공동체



자원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단의 규칙들



P2P란:

인간의 네트워크들에서 일어나는
위계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은 유형의
사회적 관계들.



이 관계들의 규모 확대와 광범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 기반시설

P2P는 위 두 측면 위에 구축된
새로운 생산양식을 가능하게 한다.



P2P는 인간과 자연을 위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잠재력을
창출한다.

커먼즈와 P2P는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가?

P2P는 커먼즈에의 기여 행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으로서 기능한다. P2P 는
커먼즈에서 특수한 '무엇'(자원), '누가'(공동체), '어떻게'(규칙들)의 관계를 최적
화하는 조건들을 창출한다.



* 이 그림 설명은 P2P재단이
작성한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에서 8-9
번의 그림설명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